

어머니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따스하고 포근한 품은 어머니의 품입니다. 잘난 자식, 못난 자식 가리지 않고 품어주고 키워주는 살뜰하고 인자한 어머니이기에 예로부터 어머니 우의 어머니는 없고 어머니 사랑을 통가할 사랑은 세상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한 외국인은 『이 세상의 모든 너성을 다 준대도 바꿀수 없는 단 한명의 너성은 어머니』라는 유명한 말도 남기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달심한 어머니 사랑에 비겨 지금 이 땅의 천만민은 자기가 사는 이 나라를 『어머니 우리 조국』이라고 정겹게 부르고 합니다.

9월의 맑고 푸른 이 하늘 아래에서 나는 펠리이는 램홍색 공화국기를 바라보며 내 운명을 맡긴 진정한 어머니조국의 따뜻한 품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 *

얼마전 나는 땅에의 손목을 잡고 평양의 문수거리에 새로 일떠서고 있는 아동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축복이와 같은 아이들만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에 겨울든 때가 엊그제인데 벌써 옹장한 자태로 드러낸 아동병원이 다름 아닌 평양산원 앞의 넓은 부지에 건설되는 것을 보니 감동이 더욱 컸고 아, 이게 바로 내 조국이구나 하는 고마움에 눈시울이 뜨겁게 되었습니다.

평양산원이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성들에게 안겨주신 선물이라면 새로 건설되는 아동병원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마련해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큰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는 평양산원과 아동병원, 너무도 신통한 이 조화는 우연이 아니라 사랑이 그대로 정치가 되고 있는 우리 조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사랑이 하도 극진하

여 자식을 언제나 생각하며 아이들은 어머니 품을 떠나 못 살기에도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와 자식들간에 흐르는 사랑과 정, 그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 할 수 없는 가장 진실하고 공고한 피줄의 연결입니다. 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그림, 사진들이 세기로 이어 사람들의 관심속에 널리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통일에 국투쟁의 길에 나섰다가 불행하게도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던 나날 고형리들은 악착한 전기고문 등 갖은 악형을 다 하였습니다.

조국의 품에 안겨 단란한 새 가정을 이루었지만 인생망년에 이르고 모친 고문으로 당한 육체적 손상을 하여 내가 아버지가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저의 인생에 짚음을 되찾아주고 복받은 삶으로 환생시켜 이 땅에 다시 태여나게 해준 품은 어머니조국의 품이었습니다.

2002년 7월 23일 그 날에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대한 이름을 받은 것은 우리 축복이 만이 아니었습니다.

위인의 품속에서 60나이에 나라 재통도 『축복이 아버지』라는 새 부름을 받아야 있습니다.

안해가 해산했다는 전화기별

을 받고 평양산원에 갔을 때 나는 어머니 품 같은 웃자와 건물안에 깔아놓은 보석주단을 보고 또 보며 이 훌륭한 산원에서 오늘은 내 땅이 태여나고 안해가 떨을 품에 안고 행복에 거여 이 보석주단을 걸어 나오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 절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그처럼 어려운 때에도 단 한번도 멈출 적 없었다는 평양산원 구급차와 콩우민유차의 경적소리, 그것은 인민사랑을 천으로 퍼트려온 청춘의 힘입니다.

자신께서는 조국수호의 험준한

령길을 넘고 또 넘으시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앙장을 펼쳐주시고 너성들의 명절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쇠도록 하여 주신

장군님의 은덕을 우리 인민은 세월이 가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너성들과 후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어

려있는 평양산원에서 내 땅 축복이가 태여나던 때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집 식구들은 지난해에만

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다섯 차례나 기념사진을 찍는 무상의 영광을 누리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더우기 우리 축복이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여 청탁으로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고 또다시 어려운 대표들과 함께 원수님을 물가끼이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행운을 받아았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그대로입니다.

지금 평양산원 앞에 건설되고 있는 아동병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시는 또 하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은 예술이며 건축설계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상태,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문명과 역사, 지향과 포부가 담겨집니다. 여기 평양산원 앞에 용장하게 일떠서는 아동병원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비가 억수로 퍼붓던 지난 7월의 어느 날에도 아동병원 건설장을 찾으시여 병원을 마음먹고 잘 지어야 하겠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병원을 건설해주시고 하는 것은 당의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을 특별히 아끼고 보살펴주시는 원수님의 정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세심하며 자애로운 사랑의 정치입니다.

그 이께서는 지난 해 어머니절을 제정하도록 해주시고 제4차 전국 어머니대회를 마련해주시였을뿐

자애로운 어버이의 사랑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은 지난해에만 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다섯 차례나 기념사진을 찍는 무상의 영광을 누리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로 병대 표로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집사람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행사대표로 또 7월에 있은 전승절 경축 행사

북남대화를 대결에 악용하는 자들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일에나 빠짐없이 끼우는 것을 형상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이 북남 관계 문제에서 악국의 감초처럼 써먹는 명사가 하나 있다. 바로 『원칙』이다.

동족과의 대결을 골고루 할 때에도 『원칙』이 있다. 저들의 반민족적, 반동일적 죄행을 합리화 할 때에도 상투적으로 써먹는 것 이 바로 『원칙』 타령이다. 최근 남조선 보수 세력들은 공화국의 성의와 아량,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북남 관계에서 일련의 결실들이 있게 되자 그것을 저들의 그 무슨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결과 인듯이 꽝고하였다. 그런가하면 저들의 동족 대결 정책으로 초래된 흘어진 가족, 친척 상봉의 연기에 대해 그 책임을 북에 넘겨씌우면서 『원칙을 계속 고수』 하겠다며 거제의 통일지향에 계속 도전해나서고 있다.

남조선의 보수 세력들이 모처럼 개선되어 가고 있던 북남 관계를 또다시 위기로 몰아넣는 『원칙론』을 고집하니 그에 대하여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남조선의 보수 세력들이 들고나오는 북남 관계에서의 『원칙론』 타령은 최근에 와서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지난 시기 리명박 『정권』 때부터 울려나온 것이 바로 『원칙』 타령이다.

북남 관계에서 무엇이 원칙인가

주제하는 바와 같이 2008년 등장한 리명박 『정권』은 집권하기 바쁘게 『잃어버린 10년』을 외워 대며 대결적인 『비핵, 개방, 3 000』을 『대북정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북남 관계에서 그 무슨 『원칙 고수』를 떠들어댔다. 공화국을 무장해제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을 이루어보겠다는 허황한 망상이 담겨있는 『비핵, 개방, 3 000』을 그 무슨 『원칙』으로 내세운 리명박 『정권』의 동족 대결, 체제 대결 소동으로 말미암아 좋게 발전하던 북남 관계는 하루아침에 친선리를 맞았다. 리명박 『정권』에 의해 북남 공동 선언들이 부정되고 외세와 암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혁약내나는 북침 전쟁 연습소동이 대일과 같이 벌어지는 속에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지되었다. 모략적인 『천안』 호침 사건을 구실로 조작한 『5·24 조치』의 여파로 동족 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길이 막히고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길이 깊어진 것은 더 말할 필요 없다.

어찌 이뿐인가.

리명박 『정권』은 『원칙 고수』의 미명 하에 민족 최대의 국상을 당한 동족에게 칼부리를 해내는 반인륜적 행위도 거리낌 없이 감행하였으며 나중에는 『집무실 타

격』이니 뭐니 하는 따위의 친족에 용납 못할 악당질을 하다 못 해 어중之意으로 『동카도』라는 레오 단체까지 무어 공화국의 최고 존엄까지 해치려는 천륜을 어기는 특대형 반민족적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리명박 『정권』이 집권 5년 기간 『원칙 고수』를 부르짖으며 간행 한 반민족적, 반동적 짓은 이루 어아릴 수 없다. 그것으로 초래된 것은 북남 관계의 참혹한 파산이었다.

리명박 『정권』이 반북 대결적인 『비핵, 개방, 3 000』을 『원칙』으로 삼고 공공연히 동족 대결, 체제 대결의 길로 나갔다면 현 보수 집권 세력은 그 무슨 『신뢰 프로세스』를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묘사하면서 『대화 있는 대결』을 추구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 보수 집권 세력은 모략적인 『천안』 호침 사건을 구실로 조작한 『5·24 조치』의 여파로 동족 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길이 막히고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길이 깊어진 것은 더 말할 필요 없다.

현 보수당국이 들고나온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그 무슨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신뢰 프로세스』는 『안보』를 바탕으로 북의 도발과 핵 위협을 억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뢰 프로

세스』는 『자유, 시장 경제 원칙』에 립각한 『평화 통일』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보』의 미명 하에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을 구실로 공화국에 대한 적대 행위들을 정당화하고 자본주의 체제인 『자유,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평화 통일』을 하겠다는 말하자면 『흡수 통일』을 기본으로 하는 『신뢰 프로세스』는 본질에 있어서 반공화국 대결 정책이다.

현 집권 세력이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내세울 때 남조선 각계가 그것이 동전의 힘으로 나갔다면 현 보수 집권 세력은 그 무슨 『신뢰 프로세스』를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묘사하면서 『대화 있는 대결』을 추구하고 있다.

현 보수집권 세력들은 이러한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삼고 그것을 『원칙』의 자막 대기로 리용하면서 동족 대결에 광분하였다.

입으로는 『대화와 신뢰』에 대하여 떠들면서 북남 사이의 개성 공업 지구 정상화를 위한 대화 분위기가 마련되어 가고 있는 때에 외세와 암합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 연습을 벌리고 이것도 부족하여 미국의 핵 전략 폭격기까지 끌어들여 북침 전

쟁도 발착동에 광분하였다. 리명박 『정권』 때처럼 어중之意으로 『동카도』를 내몰아 반공화국 베타 살포를 공공연히 벌리고 국제 무대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상의 과업이다.

이러한 조국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북과 남이 무엇을 원칙으로 삼고 지켜야 하는가.

북과 남의 온 겨레가 통일을 일천주 바라는 현실에서 북과 남이 하나의 기준을 원칙으로 삼고 판계를 풀어나갈 때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다. 순복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르다고 사사로운 감정에 포로되어 서로 다른 기준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등을 돌린다면 북남 관계는 그만큼 멀어질 것 이며 통일도 제대로 될 수 없다.

북과 남에는 이미 합의한 자주, 민족 대결, 평화 통일의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해나가고 서로 확약한 역사적인 6·15 북남 공동 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 선언이 있다.

6·15 시대는 수십년간 꽁꽁 얼어붙은 불신의 얼음을 봄날의 눈석이처럼 녹이며 실로 커다란 사변을 안아왔다.

하늘과 바다, 땅길이 열리는 전

속에 백두산과 한나산에서 북남이 함께 터친 통일의 합성이 삼천리 강산에 울려 퍼지고 흘러진 가족, 친척 상봉으로 혈육의 정이 넘치는 금강산에서는 명산을 찾은 남측 관광객들의 웃음이 차넘쳤다.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한 동음이 개성 공업 지구에서 울리는 속에 국제 체육 경기장에서는 북과 남이 어깨 나란히 공동 입장하는 경이로운 풍경도 펼쳐졌다.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러한 사변들에 온 겨레가 환호성을 울렸고 세계가 경탄하였다.

6·15 시대에 이루어진 자랑찬 결실들을 통하여 겨레가 확신한 것은 무엇인가. 북남 선언들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우리 민족끼리의 리듬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고수해나가는 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 관계의 발전과 통일의 길이 있다면 것이다.

우리 겨레가 조국 통일의 그 날 까지 높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 북남 관계에서의 기본 원칙은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천명한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북남 공동 선언들밖에 없다. 이것을 떠나, 이것을 부정하는 『원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것은 한갓 대결의 원칙일 따름이다.

원칙이 소홀하다면 동족과 대결 하려고 하지 말고 6·15 공동 선언이 천명한 우리 민족끼리에 충실히 하여야 한다.

김 응철

책임회피를 위한 치졸한 변명

지금 남조선 당국과 보수 언론들은 공화국이 이번에 취한 당연한 조치를 금강산 관광 문제와 억지로 연결 시키면서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자는 주영철 조국 통일 연구원 실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흘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로 마련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한데 대 헤 통일부를 비롯한 남조선 당국자들 속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암박하기 위한 것』이라느니, 『북이 가족 상봉과 관광을 레게 하겠다는 의도』라느니 등의 잡다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영철: 그야말로 아전인 수격의 판단이다. 그리고 북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저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주영철: 그렇지만 『원칙』은 그들의 책임이다. 그들은 『원칙』을 통해 남조선 당국과 보수 언론을 대체로 허튼 소리를 내고 있다.

개성 공업지구 정상화를 위

위한 치졸한 변명

한 북남 당국 실무 회담이 7차 까지 펼쳐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은 철두 철미 남조선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동족 대결책 동때문이다.

울해에 들어와 전쟁 국면으로 까지 치달았던 조선반도의 협약한 정세가 대화와 완화의 국면으로 바뀌게 된 것은 전적으로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통일의 새로운 전환 국면을 암아오려는 공화국의 성의 있는 입장과 노력을 떠나서 말할 수 있다.

그들은 공화국의 정당한 대화체의들도 이 페탈저 페탈하며 외면하였고 대화가 진행되는 마당에서는 『월통 같은 안보』를 부르짖으며 외세와 함께 동족을 치기 위한 전쟁 연습 소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었다.

그 떨바탕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그것은 동족에 대한 국도의 불신이고 대결이다.

그들은 이러한 악질적인 대결을 『원칙』으로 포장하며 대화와 흘어진 가족, 친척 상봉마저 불순한 대결의 핵심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구하는 남조선의 보수당국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다.

기자: 남조선 당국과 보수 언론이 그려 한 허튼 소리를 내고 있다.

개성 공업지구 정상화를 위

세워 저들의 『원칙의 결과』, 『강경론의 승리』로 벼직 떠들었다.

남조선 당국이 대화에 펼치는 자세는 보는 것처럼 철두 철미 대결이다. 대화를 그 누구를 누르고 이기려는 대결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런 속에서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없고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기 힘들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다.

또 인내성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조국 평통 일위 회원 대변인 성명이 『울지 프리덤 가디언』을 통한 군사 연습을 벌리고 이것도 부족하여 미국의 핵 전략 폭격기까지 끌어들여 북침 전쟁과 함께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로 전개되는 것을 끌어내고 있다.

그들은 『원칙 고수』를 바탕으로 북의 도발과 핵 위협을 억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 고 있다.

기자: 남조선 당국과 보수 언론이 그려 한 허튼 소리를 내고 있다.

개성 공업지구 정상화를 위

는지.

주영철: 한마디로 오늘의 파국적 사태를 초래한 책임에 서 벗어나려는 술책이라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반공화국 대결적인 『원칙론』 때문에 빚어진 이번 사태에 당황망조한 남조선의 보수派 당은 비난의 화살이 저들에게 쏠리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없고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기 힘들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다.

또 인내성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조국 평통 일위 회원 대변인 성명이 『울지 프리덤 가디언』을 통한 군사 연습을 벌리고 이것도 부족하여 미국의 핵 전략 폭격기까지 끌어들여 북침 전쟁과 함께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로 전개되는 것을 끌어내고 있다.

그들은 『원칙 고수』를 바탕으로 북의 도발과 핵 위협을 억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 고 있다.

기자: 남조선 당국과 보수 언론이 그려 한 허튼 소리를 내고 있다.

개성 공업지구 정상화를 위

허울을 벗으라

김 송림

진정한 대화와 평화의지를 보蠹하고 우를 하는 것이 『원칙론』인가 진심으로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동족의 마음에 칼질을 해대는 것이 민족을 위한 『원칙론』이란 말인가

허울을 벗으라 『신뢰』라는 비단 보자기로 감싼 그 겸은 흥심을 날낱이 드러내라 『원칙론』의 너울에 숨겨진 『대화 있는 대결』의 정체를 드러내라

티끌 만큼도 대화와 평화를 바라지 않는 대결의 양심만 품고 있는 보수派 당은 아무리 『신뢰』요 『대화』요 허울을 열겁 배溉 뒤집어 쓴 대로 대결의 그 본색만은 가리울 수 없거니

라고 하면서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였다. 한편 피폐 회피당은 로골적으로 북침 전쟁 연습 책동과 무력 증강에 광분하면서 전쟁 분위기, 대결 분위기, 대결 기운을 고조시키는가 하면 내란 음모 사건으로 회피하고 사태의 책임을 북에 떠넘겨 대처 조치를 통일을 주장하는 남조선의 민족 인사들에 대한 파쑈적인 탄압 소동을 벌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남 사이의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티끌이다.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저들이 저지른 죄악을 둘이 되어 대결의 그 본색을 보蠹하고 있으니

라고 하면서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였다. 한편 피폐 회피당은 로골적으로 북침 전쟁 연습 책동과 무력 증강에 광분하면서 전쟁 분위기, 대결 분위기, 대결 기운을 고조시키는가 하면 내란 음모 사건으로 회피하고 사태의 책임을 북에 떠넘겨 대처 조치를 통일을 주장하는 남조선의 민족 인사들에 대한 파쑈적인 탄압 소동을 벌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남 사이의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티끌이다.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저들이 저지른 죄악을 둘이 되어 대결의 그 본색을 보蠹하고 있으니

라고 하면서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였다. 한편 피폐 회피당은 로골적으로 북침 전쟁 연습 책동과 무력 증강에 광분하면서 전쟁 분위기, 대결 분위기, 대결 기운을 고조시키는가 하면 내란 음모 사건으로 회피하고 사태의 책임을 북에 떠넘겨 대처 조치를 통일을 주장하는 남조선의 민족 인사들에 대한 파쑈적인 탄압 소동을 벌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남 사이의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티끌이다.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저들이 저지른 죄악을 둘이 되어 대결의 그 본색을 보蠹하고 있으니

라고 하면서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였다. 한편 피폐 회피당은 로골적으로 북침 전쟁 연습 책동과 무력 증강에 광분하면서 전쟁 분위기, 대결 분위기, 대결 기운을 고조시키는가 하면 내란 음모 사건으로 회피하고 사태의 책임을 북에 떠넘겨 대처 조치를 통일을 주장하는 남조선의 민족 인사들에 대한 파쑈적인 탄압 소동을 벌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남 사이의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티끌이다.

『원칙 고수』로 차례질 것은 파멸뿐

조성된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 남조선에서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주장하는 모든 진보민주인사들을 「용공」,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일대 광란국이 벌어지고 있다.

남조선의 반통일보수세력이 그 무슨 『내란음모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고 그것을 공화국과 억지로 험담하면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온 통합진보당과 그 소속 성원들에 대한 뿐만 아니라 탄압선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남조선보수당국은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결성』이니, 『북파 협력하여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니 뛰어 하며 통합진보당의 『국회』의 원까지 체포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은 이번 기회에 저들의 반통일대결책 동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모조리 『종북』 감투를 쓰워 매장하기 위한 일대 『마녀사냥극』에 달라붙었다.

남조선반통일보수세력의 『종북』 광란은 남조선의 통일에 국세력과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추악하고 비렬한 정치로이며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중대도 발이다.

그것은 공화국의 주동적인 조치들과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북남사이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마련되어 가던 시기에 또다시 터져나온 것으로 하여 내외의 격분을 더욱 자아내고 있다.

왜 자기모순인가

『종북』이라는 말은 문자그대로 풀이하면 북을 따른다는 것이다. 이 말은 동족과 만나 통일론의를 하는 것에 대해 심술궂게 여기는 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이다.

여기에는 덮어놓고 북은 나쁘고 북파 련계하는 것은 물론 북파조금이라도 같은 소리를 해도 무조건 범죄라는 반통일보수세력의 해괴한 논리가 깔려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통일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이 갈수록 살벌해지고 있다.

남조선사회에 대혼란을 일으키며 확대되고 있는 『내란음모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남조선보수당은 이를 기화로 또다시 『종북마녀사냥』을 벌려놓고 있으며 나중에는 공화국과 억지로 험담하면서 비렬한 반북대결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흐려지고 북파 남의 흘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연기되게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남관계에 환물을 기울였는 저들의 망동을 반성할 대신 오히려 『내정간섭』이니 뭐

《종북론》은 북남관계파괴론, 동족대결론

인간은 누구나 진보적사상을 자율롭게 선택할 권리, 자기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하고 나눌 권리가 있다. 특히 한피줄을 이은 동족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의 사상감정을 본의 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종북론』은 동족파의 사소한 통일론이나 접촉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70년가까이 분별의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과정에서 애당초 『종북』이라는 말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북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하고 북의 동포형제들과 만나 통일을 본의한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범죄시되어야 하는가.

조국통일은 북파 남 온 거래가 주체가 되어 참가하는 전민족적위이며 민족공동의 통일리념은 바로 우리 민족끼리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혁신적인 북남공동선언에도 엄숙히 천명되어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 것은 통일의 대의인『종북』이니 뛰어 하며 편을 가르고 대결광란을 벌리는 것 자체가 용납 못할 범죄이다.

북파 접촉하고 통일론의를 한 사람들이 다 『종북』이라면 남조선에서 북을 다녀온 사람들치고 『종북』이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종북』의 자대로라면 평양에 특사를 파견하여 공화국이 제기한 조국통일3대원칙을 다 받아들이고 7.4공동성명에 도장을 찍은 이전 『유신』 독재자부터가 『종북』의 원조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전두환과 로태우군사『정권』이 안전기획부장이었던 장세동과 서동진 등을 평양에 비밀특

사로 파견한 것도 『종북행위』이고 동아일보사가 보천보전투소식을 전한 당시의 보도기사원판을 만들어 가지고 공화국을 찾아왔던 것도 『종북』이며 대규모 대표단을 무어 평양을 방문했던

『KBS』, 『SBS』, 『중앙일보』 등 남조선의 수많은 언론사 사장들도 다 『종북주의자』이다.

6.15시대 더불어 보수와 진보를 가림없이 정친인 경제인, 문화인 등 유명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북을 다녀갔는데 남조선 보수당의 혼란에 대처하면서 북남관계의 개선을 가로막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북남관계파괴론, 동족대결론이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나라의 분별로 하여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통일은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념을 앞세워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종북론』은 이렇듯 저들이 자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투성이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 소동은 한마디로 당국자들에게 북파 대화하며 신뢰를 쌓아나가려는 생각이 꼬물만큼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종북』론리하에서는 북남관계와 나라의 통일문제에 걸쳐서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

북파 남이 대화하고 화해하자면서 앞에서는 손을 잡고 돌아서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폭압의 칼날을 휘두르는 행위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다.

결국 이러한 동족대결의 광풍이 물어치는 속에서 제대로 된 대화나 협력, 상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때문에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남조선의 통일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이 결코 『내정』으로만 국한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

『신뢰』인가. 『신뢰』를 떠드는 것이 아말로 자기로운 것이다.

『범죄적 정체』 보다 싫어 『종북론』은 동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와 부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것은 북파 남의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서로 적대시하지 않을 때 대한 북남합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북남관계의 개선을 가로막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북남관계파괴론, 동족대결론이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나라의 분별로 하여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통일은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념을 앞세워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종북론』은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통일은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념을 앞세워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종북론』은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통일은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념을 앞세워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종북론』은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통일은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념을 앞세워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종북론』은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통일은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념을 앞세워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종북론』은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통일은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념을 앞세워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종북론』은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통일은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념을 앞세워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종북론』은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통일은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념을 앞세워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종북론』은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통일은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념을 앞세워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종북론』은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통일은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념을 앞세워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종북론』은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통일은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념을 앞세워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종북론』은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통일은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념을 앞세워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종북론』은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통일은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념을 앞세워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종북론』은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통일은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념을 앞세워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종북론』은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통일은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념을 앞세워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종북론』은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통일은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념을 앞세워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종북론』은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통일은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념을 앞세워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종북론』은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통일은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념을 앞세워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종북론』은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통일은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념을 앞세워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종북론』은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통일은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념을 앞세워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종북론』은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통일은 북파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념을 앞세워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상대방의 주장과 제의에서 민족공동의 리익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지난 시기 북남사이의 모든 학생들은 바로 이렇게 이름을 뒀다.

그런데 『종북론』은 북이 하는 말과 주장을 덮어놓고 부정하고 있다. 남조선의 통일에 국세력 누구의 말이 북의 말과 꼭 같고 진보민주세력 아무개의 주장이 북의 주장과 비슷하다는 식으로 무력대고 탄압과 공갈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북에서 내놓은 제안이나 주장은 뒤에 놓고 부정하고 동족과 손을 잡는 것을 무조건 범죄시하는 것은 결국 북남사이의 대화나 관계개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근 70년동안 분별의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동족과 통일론의를 하는 것이 범죄인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아니 면 끈쪽에 연기날수 없다고 했다.

우리 겨레는 북남관계를 사상류에 없는 파국으로 몰아간 리명박이 『북보다』 『종북세력』이 더 큰 문제』라고 떠들며 저들의 반공화국 대결책을 정당화하고 남조선에서 살벌한 공안탄압의 선동을 일으켰던 사실을 뚜렷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시기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국회』의 월수를 높이는 속에서도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도록 막아내는 것을 이유로 『종북』으로 불리하고 전대미문의 『종북』 광란을 앞장에서 부채질해온 것이 바로 남조선의 현 집권자이다.

집권자의 의도를 알아 섬기기라도 하듯 남조선국방부 장관 김관진은 얼마전 그 무슨 『국방정

책설명회』라는데서 『북은 『종북세력』과 협력하여 싸이버전, 미디어전, 해로 등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이른바 4세대 전쟁 협력』이니,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사건』을 그 준비로 볼 수 있다.』 느니 뛰어하고 떠들어댔다.

심지어 김관진은 북남관계개선과 관련한 공화국의 주동적인 발전조치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술적 대응』이라는 협약까지 들어놓았다.

『21세기 마녀사냥극』이 벌어지고 있는 남조선에서의 오늘의 사태는 보수당국이 『종북

로인들을 무시하는 《공약》 수정 놀음

최근 남조선에서 경제와 민생을 과탄시키고 있는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인 정책에 대한 민심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조선당국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회의》에서 《로인기초년금》을 비롯한 지난 《대선》 시기 《공약》했던 《복지공약》들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기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리유는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애당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들은 《로인차별안》, 《국민무시안》, 《복지밀당을 악용한 공약사기, 선거사기행

위》라며 보수당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빙곤에 시달리는 로인들의 수가 기하급 속으로 늘어나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젊은 세대가 로인세대를 돌보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며 자식들이 부모들을 친대하는 부패한 루리가 지배하는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로인들이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더우기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남조선사회의 토령화로 하여 로인세대의 빙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데로부터 혁대 남조선

한 말도 잊지 않았다.

《새누리당》 패들은 저들이 내놓은 《로인복지공약》을 유권자들에게 들이먹이기 위해 로인들을 위해 내놓은 앙상후보의 공약들은 《불가능한 것》, 《모호한 것》이라면서 란폭하게 험듣는데 열을 올렸었다.

그런데 1년도 채 되기 전에 했던 약속도 철면피하게 현신찍처럼 집어던지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또 얼마 안되는 《기초년금》이나마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로인들은 어떻게 하며 그들의 어려운 생활은 누가 돌봐주겠는가.

참으로 믿심을 우롱하고 로인들을 보살펴야 할 응당

한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비열한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인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보수당국이 특권층과 재벌들에게 매우 친절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현 당국자는 재벌들과의 회의라는 것을 벌려놓고 《투자부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드리고 필요없는 규제는 완화해드리고 해서 어떻게 든지 대기업을 도와드리는것이 《정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그속에서 《박(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5년은 못 살겠다.》는 유서 등을 남기고 수많은 로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들이 꾀리를 물고있다.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이 겪는 생활상고통을 단 한번도 체험해본적 리해할수도 없는 보수당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남조선사회의 민생고는 더욱 심화될것이며 사회의 《부의부, 빈익빈》현상은 더해만갈것이라는것을 뚜렷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철호

지난 21일 남조선의 언론 《뉴스Y》는 《북봉파 가능성 대비방안》이라는 미국의 그 무슨 보고서라는데 실린 《북정권이 스스로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 있다.》느니, 《동독의 붕괴와 같이 북정권이 갑자기 무너질수 있다.》는 따위의 내용을 장황하게 험거하면서 《북정권이 언제라도 붕괴할수 있으므로 〈한국〉과 미국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나발을 요란스레 불어댔다.

이에 뒤질세라 다른 보수언론들도 그 무슨 특종뉴스라도 되는듯 《북봉파설》로 지면을 어지럽히고 있다.

마치 공화국에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기라도 할듯 호들갑을 떠는 이 기사들을 보느라면 미국과 남조선의 보수당이 북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가 하는 생각에 쓴 웃음을 지울수 없고 어떻게 나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렬한 책동에 분노를 금할수 없게 한다.

공화국에서 정권에 대한 민인의 지지는 확고부동하다.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는 공화국의 일심단결은 오늘도 굳건하고 나날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세상사람들도 이번에 뚜렷히 보지 않았던가. 전승 60돐과 공화국창건 65돐을 맞으며 성태하게 진행된 열병식과 군종시위들에서 참가자들이 목청껏 터치던 만세의 우렁찬 함성을, 그들의 눈빛에 어린 정도자에 대한 한없는 신뢰와 흥모심을.

오늘 정도자를 뵈옵는 인민이 터치는 만세와 훌리는 감동의 눈물들은 강요된것도, 자이어낸것도 아닌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것이다. 그 눈물의 가치와 깊이를 알아다면 조선이 《봉파》한다는 소리를 다시는 하지 못할것

이다. 지구가 열백번 변하고 세월이 아무리 흐른대도 변할수 없고 추호도 훌릴수 없는것이 조선의 일심단결이고 그것이 떠받치는 인민정권이다.

《봉파》론에 환장이 된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쿠데타가능성》이라는 말도 종종 울려나온다. 이것도 조선의 군대를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공화국의 군대는 수령사령옹위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대이다.

인민군대가 털어친 총대에는 사상이 있다. 그것이 정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다. 조선의 정도자께서 지금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제일 어렵고도 중요한 진실화상을 모두 인민군대에 맡기고 있는것도 군대가 수령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라붙어 무조건 집행하는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선을 두고 《봉파》니 뭐니 하는 것은 하늘의 해가 떨어진다는 소리이다. 지구가 깨진다는 소리이다.

문제는 불순적 대세력이 이러한 랑설을 또다시 꼬집어내며 펴뜨리는 목적의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천하제일 강국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공화국의 위력에 겁을 먹고 세상여론을 오도하여 광진길 반공화국압살도를 끌끌내 이루어보자는것이다.

최근 좋게 흐르던 북남관계가 또다시 꼬질과 위기에 처한것도 상대방의 체제와 존엄을 부정하며 대결압살책 등에 계속 매달리는 이런 자들이 있기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의 대결정책에 맞장구를 치며 동족을 중상하는 것은 모략과 대결선동에 혈안이 되고있는 보수언론들은 민족과 통일에 백해 무익한 존재, 사이비매문집단들이다.

김영실

대화에 역행하는 전쟁소동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들이 날이 갈수록 동족대결의 화약내를 절개 풍기며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최근 호전세력들은 10월 1일 광복기적으로 벌리려는 대규모 《행사》 놀음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군의 날》과 남조선 미국 《호상방위조약》 체결 60년이 되는 이날을 계기로 남조선의 국방부는 이른바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라는 주제로 1만 2 000여명의 병력과 수많은 무장장비의 참가밀에 열병식과 시가행진을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

오늘 북남관계가 또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은 대결 광기, 전쟁열에 둘른 남조선 보수집권세력과 군부호전 광들의 책동과 격렬화되었다.

지난 9월 15일 남조선국방부의 주관하에 벌어진 《인천상륙작전》을 재현하는 《행사》를 놓고보자.

수많은 미해병대 병력과 무장장비까지 동원된 《인천상륙작전》 재현술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삼동자도 알일이다. 더우기 그 《행사》는 국방부 장관 김관진은 《북이 (종부세력)》과 함께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이른바 《4세대전쟁》을 획책한다.》느니, 《북이 현재 전술적 대화공세를 하고있을수 있다.》느니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의 곳곳에서는 미군과의 협동하에 《락동강지구 전투 전승행사》,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와 같은 조선전쟁시기의 전투장면들이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재연되고 학악화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공화국의 아량있고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된 흘어진 가족, 친척상봉

최근 남조선의 영화관들에서 기록영화 《천안》합프로젝트》가 상영된지 이틀만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영화관측은 보수단체의 항의와 시위협박으로 인하여 관람자들의 신변안전을 담보할수 없다고 상영중지인원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각계는 상영중지의 원인이 그 무슨 신변안전에 있는것이 아니라 보수당국의 부당한 간섭행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 및 상영제재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원래 기록영화 《천안》합프로젝트》는 지난 4월 27일 남조선의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되어 상영되었다.

영화의 내용은 남조선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천안》호 침몰사건의혹을 몇가지를 놓고 진행한 해양전문가와의 대답과 참고사진, 자료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와 모의실험에 기초한 과학적인 증명자료들을 결부하여 《천안》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있다. 하기야 이 영화는 상영되며 남조선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다.

남조선 보수세력들이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감추고 동족대결책동을 합리화해보겠다고 오그랑수를 써도록 자신의 진실을 밝히려는 남조선인민의 밝은 눈은 속일 수 없다.

이에 비빠맞은 남조선의 국방부와 해군 등 군부호전세력들은 《또다른 오해를 낳아 〈정부〉 발표를 못 믿는이들이 늘어날수 우려된다.》느니 뛰어 하니 상영금지 가치분신청서를 법원

에 제출하여 영화상영을 금지시키려 했다.

하나의 기록영화를 놓고 불맞은 송아지마냥 화들짝 놀라 그것의 상영을 막아보겠다고 이리저리 헤엄비는 남조선부호전세력들의 행동은 말그대로 《천안》호 사건의 진상과 저들의 모략행위가 드러난것에 바빠 한갓 추태인것으로 하여 남조선사회의 규탄과 조소만을 자아냈다.

이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영화의 제작과 상영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것으로서 《천안》합프로젝트》 상영에 하등의 문제 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천안》합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치분신청서》를 기각시키였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도 제기될수 없는 영화상영이 한갓 보수단체들의 《항의》라는 이유 아닌 리유로 중단된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는 한결같이 《정치가문화를 통제하고 견열하는 시대》, 《리명박 〈정권〉》의 〈5·24조치〉를 정당화하는 〈부당한 행위〉로 단죄하며 이번 사례의 막뒤에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견은 마수가 뻗쳐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남조선 보수세력들이

한 말도 잊지 않았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해간다

* 제9차 평양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진행 *

국제 상품전람회는 나라들 사이에 대외경제관계를 확대 하며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되고 있다.

지난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제9차 평양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는 최첨단을 돌파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공화국의 발전면모를 보여준 의의 깊은 계기로 되었다.

중국, 도이췰란드, 로씨야,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포르, 오스트랄리아, 이탈리아, 뤼르크, 브스카, 중국 대북 등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220여개의 회사들이 참가한 이번 전람회에 공화국에서는 CNC공작기계와 전기 및 전자제품, 경공업제품, 식료품, 의료기구, 건재 및 화학제품, 런전기재들을 출품하였다.

전람회기간 아시아와 유럽 등에서 온 여러 나라 기업 관계자들이 공화국이 서방의 끈질긴 반공화국제제와 고립압살책동에도 그려 없이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변혁을 이루려나가는데 대해 감탄한다.

전람회에 참가한 많은 나라 관계자들의 이목을 끈 것은 공화국의 련하기제 회사에서 출품한 CNC공작기계들이었다. 이곳 회사에서 출품한 CNC공작기계들을 주의 깊게 돌아본 유럽의 한 회사사장은 《최첨단기술이 요구되는 CNC설비들을 제힘으로 만들



어낸 것만 보아도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에 당당히 올라선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말하였다. 어느 한 나라의 기업 관계자는 자기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많은 돈을 주고 CNC공작기계들을 사다쓰고 있다고 하면서 발전된 나라들의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제품들을 만드는 련하기 회사와 경제무역거래를 가질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을 보장해

주는 지능형외국어 학습프로그램, 음악기초교육프로그램, 안드로이드용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실용성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출품한 조선 새별 기술교류사관계 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프로그램분야에서 조선의 세계 시장 진출 능력이 대단하다. 이 수준이면 국제시장에서 능히 다른 나라 제품들을 압도할 수 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하기에 여러 나라의 기업 관계자들은 《전람회기간 조선

인민이 이루한 훌륭한 과학기술 성과들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조선과 다양한 경제무역거래를 확대해나갈 결의를 펴려하였다. 내외의 큰 기대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된 제9차 평양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는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강성국가의 영마루를 향해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전진을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 수 없음을 용변으로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흥법식

본사기자 흥법식